

淨水寺法堂上樑入文

積年達磨

初一重創永樂二十一年癸卯改重創戊寅六世至七十「一歲化主億能」大木圓孝熙

二重創天順二十年戊寅間造「成壬子歲至九十五年大木法」明淨水寺住持大禪師惠令「大祖師思光化主禪熙」

三重創嘉靖三十一年壬子四月「十三日改椽上樑至癸丑化主禪熙」大木岐能(以下九字不明)

四重創萬曆十四年丙戌
五重創康熙六年丁未閏四月「二十一日上樑緣化过手惠輝」副过手覺瓊

助役元一供養主「戒俊愛男 別座學玲」化主尙淳「治匠慎丑生
六重創康熙二十八年己巳三月「初三庚午日自始破屋爲始」同月十七甲申日丙寅時入改」上樑六重創大施主秩「江華府內崔氏逸香」宋之廉兩主

이 上樑文은 康熙二十八年(一六八九)에 여섯번째로 重創하였을 때의 것이지만 이 重創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上樑文에서 흔히 重修와 같은 意味로 사용되어 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데 結局이 淨水寺 法堂은 永樂二十一年(一四二三)에 重建된 以後 大小五回到 걸쳐 修理되었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이 된다. 이들 六重創에 이르기까지의 年代와 于支는 서로 符合되며 正確하게 記錄되어 있으나 二重創의 年代만은 天順二年戊寅(一四五八)이라야 하는 것을 잘못해서 二十年으로 誤記되어 있다. 永樂二十一年의 重建 當時의 上樑文이 아니지만 그때 그때의 化主나 住持 또는 大木 以下の 이름들을 記錄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전의 上樑文에 依據하여 重修된 事實들은 그대로 正確하게 傳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造作한 것같은 句節은 거의 없다. 다만 初一重創을 말한 줄기에서 「改重創戊寅六世至七十一歲」라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며 아마 二重創의 戊寅에 이르기까지가 住持의 代數로 六世가 되고 그 동안이 七十一年間이었다는 뜻인 것 같다. 그 年數를 따지고 보면 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나 二重創에서 三重創인 嘉靖三十一年(一五五二)壬子까지를 九十五年이라 한 것은 正確하게 들어 맞는다.

이러한 問題 以外에 좀 알아 보기 어려운 말들을 추려서 蛇尾를 붙이면 二重創의 大祖는 大禪師의 잘못일 것이며 三重創에서 改椽上樑은 서까래를 갈고 道里까지도 갈아서 上樑하였다는 것, 五重創의 緣化는 佛事를 經營하는데 募緣勸化한다는 말, 그리고 过手의 过은 邊字의 俗字로서 이 邊手는 邊首라고도 쓰고 또 片手라고도 흔히들 쓰는데 그 뜻은 工匠들의 頭目을 가리킨다. 助役은 文字 그대로이며 供養主는 절에서 밥을 짓는 중, 別座는 佛事가 있을 때 그 錢穀을 맡아 보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化主는 施主와 같은 意味로서도 使用하지만 四方으로 다니며 施主를 얻어 財物을 모아서 어떤 佛事를 成就케 한 僧侶를 가르켜 化主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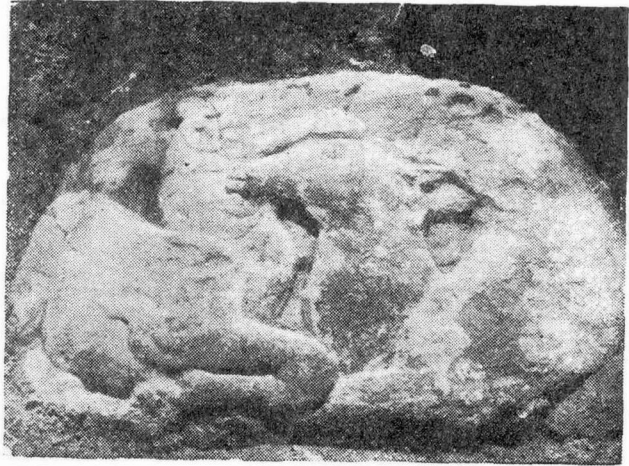
끝으로 또 한가지 言及해 두어야 할 것은 中間에 와서 前面의 退間과 內部의 우물天井을 덧붙인 時期에 關係하지 않지만 上樑文에는 전혀 그러한 點에 對하여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後世에 添加된 部分은 그 솜씨로 미루어 보아 壬辰 以後의 일로 짐작되므로 結局 五重創이나 六重創 때의 것으로 틀림없을 것이나 그 어느 쪽인지는 實地로 建物の 細部를 詳細히 檢討하기 전에는 갑자기 判斷을 내리기 어렵다.

楊州 水石里의 石物들

金 元 龍

京畿道 楊州郡 漢金面 水石里 石室部落 옆에 石物이 二, 三箇가 있는데 모두 保存해야 할 重要한 遺物들이라고 생각된다.

그 中 하나나 花崗岩製 龜趺이며 목이 바르고 담담하나 잔등에서 反轉하는 荷葉이 實感이 있다. 이 龜趺 前方에 片磨 岩製碑首가 떨어져 있는데 距離로 보아도 그렇고 部落사람들 말을 들어도 그렇고 이것이 元來 이 龜趺위에 세워 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碑首는 우리가 普通 보는 龍이 아니고 雙鹿이 새겨 있는 것이 珍貴하다. 寫眞에서 보다 싶이



이것은 도무지 理解하기 힘든다.

그런데 또하나 理解하기 힘든 것은 이 龜趺에서 열마 안떨어진 곳에 자빠져 있는 머리없는 花崗岩製石人이다. 두손을 숨쳐 右肩앞에서 무엇인가를 받들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石人의 彫刻이 優秀함은 說明을 불일 必要가 없다. 體軀의 肉體感도 그렇거니와 衣褶 特히 소매의 그것 은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다. 이것도 李朝의 石人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아무래도 高麗以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部落의 老人말에 依하면 自己가 젊었을 때는 碑身이 있었는데 누가 石材로 깨뜨려 써버린 것이며 龜趺있는 곳 上方에 큰 石室墓가 있

말을 끊으려고 마 주앉은 사슴의 寫實 的인 描寫라든가 뛰어난 모델링은 놀라 울 程度이며 動物의 生命感과 運動感을 이렇게 效果的으로 나타낸 作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碑首와 龜趺가 同一時代 同一人의 所作이라고는 想像하기 힘들며 彫刻自體를 보아서는 이 碑首는 高麗以後로 떨어져 갈지 않는다. 그런데 龜趺는 嚴然한 李朝—그것 도 中期頃의 것이니

었는데 모두 파헤쳐서 石材로 썼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 近處 골짜기에 다들질한 石材가 굴러다니고 있다. 그런데 더욱 異常한 것은 깨뜨리기 以前의 碑身에는 이것이 李適의 墓라고 써있었다는 것이다. 李適 이라면 平安兵使로 있다가 仁祖二年(西紀一六二四年)에 亂을 일으켜 한 때 서울을 占領했던 武將이며 끝내는 部下에게 利川에서 殺害당한 사람인데 이러한 逆賊의 墓를 이렇게 크게 쓸 수가 없으며 이것이 李適의 墓라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 없다. 碑身에 李適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部落사람의 눈에 띄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李適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李適이 書家로서 적혀있었는지 모른다. 事實 李適은 武人이면서 能文善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推測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무덤은 結局 李適의 時代를 올라가지 못하 는—말하자면 李朝中期의 무덤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石物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或은 古墓의 石物을 훔쳐다 세운 것인지 何如든 異常한 일이다.

(追記) 이 石物은 文化財保存會에 登錄되어 있으니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新出石象一例

全 瑩 珮

近者 古寺趾 遺來品으로 傳해지는 조고마한 石象一軀를 過眼하였는데